

소 원

주제: 자유

갈래: 단편 소설

배경: 판타지

‘귀신이 사는 산’이라 불리던 곳에서 여행자를 위협한 건 귀신에 준하는 몬스터나 흉포한 짐승이 아니었다.?이 산은 그런 존재가 서식할만한 먹잇감이 많은 환경이 아니며,?주요 거주민은 나무나 풀떼기 같은 식물이 전부다.?그럼에도 위험은 존재한다.

?

그것들은 좀 더 현실적이고 세상 모든 곳에 보편적으로 출몰하는 악인이었다.

젠장,?한밤에 산을 넘는 게 아니었는데,?여행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을 때 뒤쪽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

“거기 서라!!”

“내게 이래라저래라 명령하지 마!?니들이 내 주인이라도 되냐!”

“음!?!저기다!?목소리가 분명 저기서 들렸어!?빨리 쫓아!!”

“(..제기랄.)”

?

덜덜어진 여행자는 자신의 멍청함을 욕하며 곧장 입을 봉인했다.?그리고 달리기에 전념하기 위해 온 정신을 다리근육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정신력이 육체의 한계점을 넘어서게 해준다는 이야기는 가설로만 존재할 뿐이다.?여행자의 칼집에 가공된 쇳덩이가 비었다고 한들,?산적들에게 오랫동안 쫓긴 그의 다리는 피로를 토했다.?그리고 주인이 만족하지 못할 속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다급해진 여행자는 자신의 다리에 의지라는 채찍을 후려쳤다.?결과는 인상적이었다.

삐끗- “어라?”

미끄러졌다는 사실을 알아챈과 동시에 그의 몸이 가파른 언덕 위를 구르기 시작했다.?뒹굴임을 멈춰보려고 시도는 해보았지만,?어설픈 저항은 더 큰 고통을 선사했다.

조금 뒤, 나무에 부딪히거나 돌맹이에 할퀴어지거나 흙을 들이마시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끝에 그의 몸이 멈춰졌다. 비록 얼굴은 바닥에 처박은 모습이었지만, 여행자는 신경쓰지 않고 몸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감행했다.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입에서 가느다란 고통을 흘려내며 그는 다시 흙바닥에 몸을 처박았다.

“(뭐야, 이 새끼 어디 간 거야?)”

“(숨은 거다! 여기 어딘가에 있어! 근방을 살살이 수색해라! 핏값을 받아내자!)”

“(명령 그만내리고 너도 좀 찾아!)”

목소리는 먼 곳에 들려왔다. 도적들과의 거리가 꽤 있다는 것에 여행자는 안심하고 가쁜 숨을 쉬었다. 그리고 흙을 들이킨 대가로 기침을 했다.

?

현재 여행자의 몸은 말이 아니었다. 침, 콧물, 눈물, 땀 등 온몸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몸은 전신마비가 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시체가 된 기분을 느끼며 여행자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의심해보기 시작했다. 다행히 심장은 누군가의 손아귀에서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호소했기에 죽었다는 가설은 보류할 수 있었다. 고통스러운 식별법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어디인가.

?

강제적으로 쉬는 시간이 찾아왔다. 그때 여행자는 마음속 쌓인 장작에 복수심을 지피기 시작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다. 사람을 죽이려는 것은 자신이 그 사람에게 죽는 것. 혹은 그만한 대가를 감수하고 일어나는 행동이다. 따라서 여행자 자신도 도적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감수하기로 했다.

죽음. 하나는 죽어야 이 불합리한 거래는 끝날 것이다.

잠깐의 휴식(이라 불리는 전신마비)?뒤에 여행자는 강제로 몸을 일으켰다. 산적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취한 듯 비틀거리며 일어난 그는 근처 나무에 몸을 기댄 채 도망칠 방법을 모색했다.

그리고 절망했다. 아무리 고민해도 이 산 지형에 대해 문외한인 여행자는 스스로에게 답을 줄 수 없었다. 산의 부당한 거주민인 산적에게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방금까지 복수를 계획하던 이라고 하기엔 초라한 모습이었다.

우유부단한 그에게 다른 이가 힌트를 주었다.

‘..로 오게.’

여행자는 자신의 쿵광이던 심장이 마비된 것을 느끼고는 딸꾹질을 시전했다.?그러나 근처에 산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뭐지??내 내면의 천사가 말해준 것인가??오 세상에,?내 양심이 이렇게나 쓸모가 있었다니,?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착각하는 그에게 다른 이가 답을 주었다.

‘어이,?이쪽으로 오게..?이쪽이야..’

그때 여행자는 이곳이 통칭?’귀신의 산’이라 불리는 것을 기억해냈다.

비명이 손가락 틈으로 새어나갔다.?그리고 확신했다.?젠장,?귀신이다!?여행자는 나무에서 주르르 미끄러지다,?곧 주저앉으며 확신했다.?가느다랗고 힘없는 목소리가,?그것도 뇌에서 울리는 듯한 목소리가 저 산적들이나 나의 것일 리가 없잖아!

패닉하는 그에게 다른 이가 물음을 제시했다.

‘..자네 귀머거리인가??아니,?머리로 대화하는 것이니 들리긴 들릴텐데,?일단 이쪽으로 오게.?저 흉악한 산적들에게서 도망치는 게 아니었나?’

멍청이가 된 기분에 여행자는 곤욕스러워졌다.?귀신치곤 너무 친절했기 때문이다.?애초에 귀신이 사람을 부를 일이 거의 없다.?존재가 들키는 즉시 먹잇감이 도망치기 때문이다.?몰래 기습하면 모를까,?하다못해 유인이라 해도 도움을 청하는 등의 속임수를 이용하지,?저런 방식은 사용하진 않는다.?환청이나 난청의 부류라 치더라도 목소리는 너무 뚜렷했다.

..이거 대답을 해야 할까??그 생각은 한 목소리에 의해 결정되었다.

“어디 있는 거야!?찾기만 해봐,?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몸에 직접 새겨줄 것이다!”

여행자의 피부를 두루마리처럼 사용하겠다는 것인지,?노예처럼 다뤄주겠다는 것인지 궁금했지만,?여행자는 침묵했다.?둘 중 어느 것이라도 비극적이라는 이유도 있지만,?목소리가 생각 외로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행자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착한 사람 같으니 따라가 봐도 된다는 자신의?(다소 신뢰성 떨어지는 경험적 자료와 나열하면 말도 안 되는 귀납적 추론)?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여행자의 발걸음이 목소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그리고 걷는 것보다 절뚝임에 가까운 속도로 거친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여행자가 대답을 못한다는 걸 인지한 듯 목소리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들려줬다.?좋은 점은 어조 자체는 친절했다는 것이며,?나쁜 점은 내용이 불친절했다는 것이다.?누군가의 말에 따라 발소리를 줄이고 거친 산비탈을 오르고 내려가는 행동을 동시에 하는 여행자의 심정을 이해할 사람은 그를 쫓고 있을 산적 외에는 더 없을 것이다.

‘걸음’이라는 고된 노동 끝에,?여행자는 한 거대한 절벽에 도착했다.?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 마냥 땅에서 급하게 일어선 모양새였다.?그러나 오랜 관찰과 목소리의 조언 덕에 여행자는 자신의 바로 앞이 나무와 바위의 적절한 대비로 이루어진 동굴 입구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다시 여행자는 고민하기 시작했다.?동굴이라 하기엔 몬스터의 쉼터나 숨겨진 함정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그리고 그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산적의 발소리가 교정시켜주었다.?그는 거의 기어가는 모습임에도 꽤 빠른 속도로 동굴에 들어섰다.

?

그는 곧장 동굴 안쪽을 깊숙이 들어갔다.?아직 밤이었고,?불씨하나 없는 동굴은 바깥보다 몇 배는 더 어두웠다.?그러나 어둠에 익숙해진 여행자의 시야가 곧 회복되어 물체의 윤곽이 대강 보이기 시작했다.?이제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여행자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

‘이런,?아직 도착도 안 했다네.’

?

여행자는 과장되게 몸을 들썩였다.?돌바닥에 엉덩이를 찌이고 한참을 고통스러워하던 여행자는 몸을 추스르고 근처를 돌아봤다.?보이는 건 없었다.

다시 목소리가 말했다.

‘미안하군.?몸을 감추고 있는 걸 잊고 있었어.?잠시만 기다리게.’

무언가 허공에서 반짝였다.?반짝임을 반복하며 부풀어 오른 그것은 곧 사람의 형체를 이루었다.?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따라왔기에 여행자는 팔로 자신의 눈을 가렸다.

점차 빛이 사그라졌다.?여행자는 서서히 팔을 내리고 앞쪽을 바라보았다.?그리고 경악했다.?여행자의 놀랜 눈을 마주보며 반투명한 인간 형체가 장난스럽게 눈을 찡긍거렸다.

‘죽은 지 오래됐어도 인사 예절은 잊지 않았지.?그래,?안녕하신가?’

유령이었다.?구토를 가까스로 참아내며 여행자는?‘혼수상태’라는 투표함에 긍정적인 한 표를 집

어넣고 싶어졌다.

‘위워,?진정하게.?왜 이렇게 겁이 많은가?’

?

여행자는 이렇게 쏘아붙이고 싶었다.?그럼 제가 인사라도 할까요?

?

그렇게 말하기로 결심한 여행자가 입을 열었다.

?

“딸꾹!”

‘..일단 진정하는 게 좋겠군.’

그러면서 유령은 동굴 바위에 걸터앉았다.?하지만 모양새만 그러했다.?그의 일부분은 쉴 새 없이 흔들렸고,?그때마다 펄럭이는 몸이 바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대화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었다.?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끼며 여행자는 유령이 친절하다는 것과 이곳이 어둡다는 사실에 고마워했다.?그러나 유령은 밤눈이 좋았기에 여행자의 얼굴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었고,?곧 그의 심정을 알아차렸다.

다시 친절을 발휘한 유령은 그를 힘껏 무시했다.?대다수의 배려처럼 당사자는 알아채기 힘든 배려였다.?그 덕에 여행자는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딸꾹,?딸꾹,?딸꾹.?한참동안 딸꾹 소리가 동굴을 자그맣게 매웠다.?적지 않은 시간 뒤,?여행자의 호흡기관이 진정했다.

‘음,?개인적인 사정은 끝났나?’

“..그런 것 같네요.”

‘좋네.?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겠지?’

?

여행자는 초면이라면,?설사 그 대상이 황제일지라도 큰 꾸중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을 했다.

“..저,?뉘시죠?”

‘응??보시다시피 유령이지. 귀머거리가 아니라 눈뜬장님이었나?’

멍청해진 기분을 만끽하며 여행자는 머리를 긁적였다.

“질문을 정정해야겠군요.?혹시 이?’귀신의 산’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까?”

‘..원 산?’

여행자는 유령의 반응에 의아해했다.

“이 산에 사는 한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옛날까진 아니고 근래부터 혼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한다는 말이 있지요.?그래서 사람들이 산을 오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거 재미있군.?그럼 자네는 왜 올라왔나?’

난데없는 질문임에도 여행자는 침착하게 대응했다.?손을 꼭 쥐고 수전증이 일어났지만 아무튼.

“산적들의 존재 때문이지요.?아무도 없는 이 산에 산적들이 눌러살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그놈들은 멀쩡하니 전 소문이 거짓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산을 넘으려 했죠.?마침 산적들이 다른 산으로 산적 짓 하러 갔다고 해서 더더욱.?돌아가려면 몇 배는 귀찮은 짓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랬나??그래서 사람들이 안 올라왔군.’

여행자는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보다 절 이제 어찌실 생각이신지...?”

‘날 직접 만난 사람도 몇 있었는데.?그들은 뭐라 안 그랬나?’

“노인분께 들긴 들었습니다.?유령과 직접 만나면 무언갈 시키려고 한다고요.?사실입니까?”

‘그래.?그 말대로일세.’

여행자는 자기 선택에 후회했다.?이럴 줄 알았으면 산적에게 잡히는 것이 훨씬 나아 보였다.?지금 당장 도망친다는 선택지도 존재했지만.?여행자의 지친 다리가 거부하고 있었다.

문득 여행자는 산적들과 싸우다 잃어버린 칼이 그리워짐을 느꼈다.?칼이 유령에게 물리적 타격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만.?무기는 존재 자체가?소지자에겐 용기를 주는 물건이다.?가벼운 칼집은 불안을 증대시킬 뿐이었다.

여행자의 침울한 표정을 보던 유령이 갑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자네를 해할까 걱정 말게.?난 억울함에 적셔있는 처녀귀신이나.?원한으로 사무쳐진 복수귀나.?사람을 해하려는 악귀나.?장난 많은 도깨비도 아닐세.?난 좀 독특한 이유로 귀신이 됐지.?해하려 했다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기습했겠지.?안 그러나?’

“실례가 되겠지만.?악마가 유쾌하다고 사람들은 그 모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그리고 무언가를 시킬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하지만 선택일세.’

여행자의 의문스러운 표정을 보며 유령이 말했다.

‘귀신의 산 주인’이냐고 했는가??그러나 난 공포로 사람의 위에 군림하는 이들은 싫어해서 말이지.?그러니 그 칭호를 거부하겠네.?난 평범한 사람이지..?아니,?유령이라네.?밖에 있는 산적처럼 불법 침입자일 뿐이지.’

?

‘다시 말해 나는 이 산의 주인이 아니고,?자네에게 영토에 들어왔다고 화를 내지 않을 걸세.?때문에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네.’

?

그 말을 듣던 여행자는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다.?그리고 묘한 논리에 조금 납득했다.?그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었다.

?

“그 시킬 것은 무엇이죠?”

‘부탁이지.?일단 직접 보고 결정하도록 하지.?먼저 날 따라오도록 하게.?뭐,?여의치 않다면 돌아가도 좋네.?대신 기회는 사라질 걸세.’

?

여행자는 망설였지만,?유령은 시원하게 말했다.

?

‘여행자인 것 같네만,?만약 날 따라온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굉장한 것을 보여주지.?장담하지만,?자네는 선택지를 준 내게 고마움을 느낄 걸세.’

?

인생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때는 별 없거든.?그리고는 유령은 동굴 안쪽으로 부유했다.?유령의 모습이 작아지는 만큼 여행자의 호기심이 그만큼 지피어졌다.?여행자는 급히 자기 상황을 따졌다.

?

밖으로 나간다면 산적에게 죽을 것이 분명하다.?그렇다고 여기서 기다린다면 자기가 그 호기심을 못 이길 것이다.?그때는 기회가 달아날 수 있었다.?그때의 후회 또한?’반드시?’막심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

망설임이 있다면 여행자의 삶은 좀 더 평탄했을 것이고,?여행자가 알기론 자신의 삶은 항상 평탄치 못했다.?자기가 적성에 들어맞는 직업을 가진 것에 감사해하며 여행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

아직 다리는 저렸지만,?근육에 힘을 주고 멀어져가는 유령을 뒤쫓기 시작했다.

?

?

--

유령이란 무엇인가??유령은 강력한 의지를 가진 몬스터의 일종으로,?하나같이 의지를 가진 지성체임과 동시에 분명한 예비살인마다.

이유는 간단하다. '죽음을 거부할 의지'는 그냥 생기지 않는다.?목표라는 것이 뚜렷해야 한다.?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유령의 생성조건을 성립시키진 않는데,?절박함이라는 양념도?'꽤 많이'?필요하기 때문이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은 절박함이 거의 없다.?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낙관성과 헌신 정도다.?특히 성직자는 자연적인 사망은 몰라도,?순교 때의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으신다.?천국에 대한 낙관성과 세상을 위한 소소한 헌신이라고 해석하면 될까나.?그러나 사람은 어제 자기목숨 구해줄 사람의 은혜보다 눈깔을 부라리며 시비 거는 자의 복수를 더 갈망하는 생물이다.?전자는 몰라도 후자일수록 절박함에 시달린다는 뜻이다.?따라서 선의 목표보단 악의 목적이 유령 생성을 더욱 추구한다.

물론 어중간한 복수심으로는 잡귀조차 되지 못한다.?한낱 인간이 죽음이라는 신의 섭리를 거스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근데 태초에 남녀가 했던 짓을 후손이 못할 리 없다.?천사보다 악마가 더 많이 강림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리.

"..라고 알고 있었는데,?생각보다 친절하시네요.?혹시 유령이 아니라 유적지의 홀로그램인가요?"

유령에게서 얇게 새어나오는 푸른빛에 의존하며 여행자는 동굴을 걷고 있었다.?대충 윤곽은 보이지만,?안쪽으로 갈수록 더욱 어두워지고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시야 또한 희미했기에 넘어지는 일도 적지 않았다.?유령은 부축을 도와주려다 되려 통과해버리는 것에 머쓱해하며 말했다.

'그건 아니네.?확실히 죽음을 겪은 몸이네만..'

여행자와 유령과의 거리는?1m?안팎이었다.?어느새 먼저 대화도 꺼내는 여행자에게 유령은 신기해했다.

?

'날 보고 도망치지 않은 이가 몇 있었지.?하지만 인간 중에는 자네처럼 편히 말거는 이는 없었네.?게다가 홀로그램이라,?그런걸 아는 자네가 더 흥미롭군.?자네는 뭐가?'

"여행자입니다."

'농담도 지나치군.?그런 것을 아는 사람 별 없다니까.'

"그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저도 도움을 청하거나 복수귀는 많이 봤지만,?다른 이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유령은 설화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혹시 악마입니까??저를

시험하려는?”

‘그럼 자네 정체에 대해 알고 있었겠지.’

서로의 정체를 알아내려는 시도는 한동안 지속됐다.?하지만 대화는?1분에 주제를?6번이나 바꾸는 해괴한 정보 교환 수단이고.?어느새 여행자는 여행자라는 직업을 자유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었다.

“구속이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은 항상 자유로워 보이죠.?그러나 그 자유로 인해 생기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합니다.?예를 들어.?지금 유령님께서 절 죽이셔도 제게 책임이 있겠죠.?제가 선택해서 따라 들어온 것이니까.”

‘허허.?그럴 생각 없다는 걸 다시 말해야겠군.?그리고?’

“어느 객지에서 죽어도 그 가치를 알아봐주지 못합니다.?봉변을 당해도 신용이 없기에 저를 도울 이는 없습니다.?방랑의 자유를 누리나 그만한 힘과 실력을 갖추고 살아야 하죠.?그럼 어느새 개인주의자가 되어있는 것이 자유를 닮았다고 합니다.”

‘여행자답지 않게 유식하군.’

“이런 유식함을 지녀야 하는 것도 여행자의 고충이겠죠.”

?

둘 모두 웃음을 터트렸다.?다른 이가 보았다면 기겁할 장면이지만 아무튼.

?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아직도 믿기 힘듭니다.?당신의 존재 자체가.?그러니까 신께서 창조하신 세상 법칙을 저항한다는 증거라는 사실이 잊히긴 힘들거든요.”

‘하긴.?대다수의 유령은?’한’을 가지고 있지.?그것으로 죽음을 저항해 이승에서 자기 뜻을 이루려하지.?나도 그러지 않다고 부정은 못하겠지만.?이건 자의가 아니었어.?그렇다고 해도 타의도 아니었지.’

“그럼 무엇이죠?”

‘해답에 도달했네.?직접 한 번 봐보게나.’

유령이 멈춰섬에 따라 여행자도 정지했다.?그리고 근처를 둘러보았지만.?눈을 가리고 근처를 살피는 것과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바람소리가 넓게 들리는 것을 보아 바로 앞에 거대한 공간이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지만 안 보이면 그만이다.?유령은 캄캄한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게 답일세.?어떤가??좀 황당하지?’

“네.?매우 그렇습니다.?아무것도 안 보이니 황당하네요.”

‘응..??아.?미안하네.?자넨 유령이 아니었지?’

“좀 소름끼치는 말씀입니다만.”

‘허허.?괜찮네.?자네는 죽지 않을 거라니까.?그저 이곳까지 온 손님은 없어서 불키는 것을 까먹은 것뿐이네.?잠시만 기다리게.’

유령이 반투명한 손을 공중을 향해 뻗었다.?잠시 손가락을 놀리던 유령이 허공을 가르는 듯한 행동을 과장되게 취하였다.?마치 음악이 끝난 지휘자의 힘찬 모습과 비슷한 움직임이었다.

허공에 푸른빛이 나타난다.?하나가 아닌 여러 작은 발광체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갑작스러운 빛에 여행자는 옥신이는 눈을 가렸다.?그리고 공간이 확장되는 압도적인 기분과 함께 여행자는 눈을 떴다.

여행자는 동굴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마법처럼 느껴졌다.

전체적으로 키 작고 옆으로 뚱뚱한 원형의 공간이었다.?동굴 가운데에 솟아오른 듯한 물웅덩이가 푸른빛에 반짝거리는 것이 정령들의 호수를 연상시켰다.?동굴 벽 곳곳이 박힌 크리스탈 모양의 광물 또한 푸른빛을 튕겨내는 동시에 이곳에 신비로움을 흠뻑렸고.?종유석은 기둥을 형성하거나 커튼의 모양새로 괴기한 부분을 가리는 등 배경의 아름다움에 일조하고 있었다.

"..대단하군요.?여기는 어디죠?"

'나만의 작업공간이네.?여기서 인생을 마감했고,?쪽 떠나지 않았지.?시체 또한 없으니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망치지 않지.?그보다 저길 보게.'

그가 가리킨 구석진 곳에 늙은 나무 책상이 있었다.?물론 눈으로 나무의 나이를 세는 건 불가능하지만,?저 책상은 가능했다.?침식된 듯 여기저기 갈라지고 결 자체가 삭아버렸음에도 그것은 고풍스러운 향기가 나는 듯했다.?푸른 잔향의 빛 덕에 신비롭기까지 했다.

유령이 그곳으로 부유했다.?그를 따라가며 여행자는 꿈속에 있는 느낌을 받았다.?혹시 산적들에게 붙잡혀 기절한 것이 아닐까??그럼 산적들에게 고마워하리라.?이런 공간이 아니면 눈을 만족시킬 일이 별 없을 것이니까.

그의 실없는 생각을 유령이 께다.

'정신차리고,?저기 책상이 보이냐?'

여행자는 끄덕였다.

'그럼 됐네.?그럼 그 위에 있는걸 보게.'

여행자는 시선을 돌렸다.?책상 위에는 언제 적인지 모를 먼지 쌓인 고서와 선으로 이루어진 복잡하면서도 멋스러운 문양이 새겨진 푸른 천 여러 장,?각종 괴상한 물품 등 여행자에게엔 잡동사니로 불릴 것들이 너저분하게 모여 있었다.

그리고 뜬금없이.

‘저것 좀 들어주게.’

유령이 가리킨 건 책상에 있는 것 중 가장 평범하고 이질적인 물건이고 자연적인 물건이었다.

‘돌’이었다.?어딜 봐도 돌이었다.?보석이나 고서나 식물도 아닌.?돌이었다.

혹시 관문인가??진실을 보는 시야를 시험하는 걸까??잡념에 빠진 여행자가 가만히 있자 유령이 다시 말했다.

‘그것 맞네.?자네가 좀 주워주게.?난 이래서 말이야.’

유령이 돌을 집었고,그 손은 돌을 통과해버렸다.?납득했지만 황당함은 사라지지 않았다.?조금 머뭇거리며 여행자는 돌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확신했다.?돌이었다.?던지기 괜찮은 무게와 딱딱하고 거칠거칠한 촉감마저 돌이었다.
?

특별한 건 없었다.?동굴 여기저기 박힌 크리스탈이 훨씬 고급스러워 보였다.?그러나 여행자는 생각했다.?이 공간에 무언가 더 있을 것이다.?이대로 끝나지 않고 이 돌은 하나의 열쇠같이 보물을 여는 도구일 것이다.?혹시 모른다.?이 돌을 호수 중앙에 던지면 물결이 떨리며 웅덩이가 가라앉고 비밀 방으로 통하는 길이 나올 거라는-

‘그래,?내 생애의 역작!?그걸 사용해줬으면 하네만.’

허탈함이 여행자를 감쌌다.?유령도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라는 망상을 펼치던 여행자를 톡톡 건들며(물론 통과했지만, 유령 특유의 서늘한 기운이 여행자를 감쌌다)?유령이 말했다.

‘이게 무엇인지 아는가?’

“..돌이군요.”

‘그렇게.?어딜봐도 돌이지.?외견은 그렇고 이루는 성질조차 돌과 일치하니 말이야.?하지만 저 돌은 매우 특별한?’번칙성’을 띄는 물체라네.’

“무엇이죠??예부터 조상들이 사용했던 유서 깊은 만능살인도구에 영혼이라도 깃들었나요?”

그는 다시 빙긋 웃었다.?그리고 그 얼굴에서 나오기 힘든 말이 나왔다.

‘에고 소드??에고 스톤??그보다 훨씬 근사한 물건이지.?이 돌은 소원을 이루어주거든.’

순간 여행자는 귀를 의심했다.?그리고 돌로 시선을 돌린 뒤에는 눈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갑자기 돌이 보석처럼 광채가 보이는 환각을 겪었기 때문이다.?여행자는 어버버하다.?눈을 비볐다.?그리고 조금 뒤,?약간 땀뻘하다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말했다.

?

"..소원이요?"

'그래.'

"..뭐든지요?"

?

폭탄을 들었다는 듯 손을 떠는 여행자에게 유령은 매우 가벼운 태도로 답했다.

?

'무엇이든.'

?

장난스러운 억양이었다.?여행자의 짧은 지병인 딸꾹질이 재발하였다.?딸꾹.?딸꾹

_ _ _ _ _

'좀 괜찮아졌나?' ..네.' "그럼 다시 묻지. 소원은 무엇으로 빌 건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무엇이든.' ..딸꾹질이 다시 날 뻔 했습니다.유령이 웃었다. 여행자도 그 미소를 따라했지만 쉽지는 않았다. 소원을 들어준다면, 좋은 말은 전설, 설화에서 읽어봤던 것이, 조금 하찮게 말하면 동화에서나 들어봤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이 여행자는 믿기 힘들었다. 그것도 도적에게 쫓기다 소원을 빌고 있다니, 애들 동화치곤 부끄러운 이야기다.여행자는 돌을 매만졌다. 마음이 안정됨을 느끼며 간신히 유령에게 말을 걸 수 있었다."이걸 제가 해도 되는 겁니까?" "왜, 싫나?" "실감이 안 나서 말입니다. 어딜 봐도.. 그러니까 주먹찌르개 정도의 돌이 소원을 이뤄준다니, 그리고 저는 이런 행운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그리고 여행자는 고개를 푹 숙였다. 유령은 그 의미를 꿰뚫어보았다.'소원을 이뤄주는 도구를 주먹찌르개라 표현하다니, 이거 스스로 부끄러울 만 하구만. 그보다 정말 뭐하는 사람인가? 그런 용어를 아는 여행자는 흔치 않은데.'

"제 질문에 대답해주시죠. 제가 빌어도 되는 겁니까?"유령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여행자의 눈엔 너무 당연한 걸 질문했기에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다. 곧 유령이 답을 내놓았다.'난 이 산에 묶여있었네.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그래서 산에 오른 사람에게만 접촉을 시도하지. 그 중엔 인간 아닌 다른 종족도 몇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날 거부했네. 그러나 자네는? 자네만이 끝까지 따라왔지. 그러니 자격 있으리라 난 생각하겠네.' ..그래도 저 같은 것이 써도 될까요? 좀 더 지성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자네 생각하기에 달렸지. 저기 밖에 있는 산적들 보다는 좀 더 경제적인 소원을 빌지 않을까 싶네.'이유는 없지만 납득이 되는 말이었다. 돌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여행자에게 유령이 물었다.'어떤 소원을 빌 건가?' "글쎄요, 너무 많아서 정하기 까다롭네요. 추천이라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호, 유령이 호기심을 드러냈다.'보통 여행자들

은 목표를 정해두고 세상을 누비기에 소원 정하기도 쉬울 것 같았는데 편견이었나 보군. 그럼 미녀나 재물 같은 건 어떤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소원이 아닌가?”“전 다른 사람과 조금 달라서요. 그런 것들은 정착할 때나 필요하죠. 신뢰할 수 있는 예쁜 관리인과 재물로 쌓인 창고는 몰라도.”“이거 진성 여행가로군.”“제 천성이니까요. 그러니 돈보다 절망감밖에 없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겠죠.”“그래도 로망은 있지만. 자신 이외엔 이해치 못할 대답은 하지 않으며 여행자는 고민에 빠졌다.

너무 어려운 과제였다. 과도하게 많은 물품이 있는 대형 상점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선택지는 너무 많고, 그 길의 끝은 바다의 수평선마냥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너머는 분명 존재한다.

젠장, 세상에 도덕이란 경계선이 흐릿하게나 있다는 걸 여행자는 안다. 그러나 이것엔 정답과 오답이 존재치 않는다.

생각이라도 해놓게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여행자는 그리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바보로 여겼다. 소원을 이뤄준다는 말을 들었으면 소망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도망치는 선택지를 고를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유령이 소원을 들어준다니,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없을 테니까. 두통이 여행자의 머리를 마구 후려쳤다. 지능이 떨어지는 느낌이 직감할 때, 여행자에게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문득 그는 자신의 소원과 세상의 경계선에 저울질을 했다. 그러나 곧 소원이라는 것에 정답과 오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래도 여행자는 고민했다. 그것은 한 시간도 안 된 따끈따끈한 기억이었다. 입술을 씹은 채 흙- 소리를 길게 내던 여행자는 자신의 생각을 털어두기로 했다.”..사실 소원 하나가 있긴 합니다. 다짐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군요.”“무엇이지?”“산적들의 목숨이 신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제 첫 번째 소원입니다.”죽음. 몸소 겪어본 유령이 그것을 못 알아듣진 않았다. 유령은 경악보다 의아함을 보였다.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건가?’“아니요, 맞습니다. 잘 모르겠군요. 소원으로 이루어진 죽음이 살해인지.. 하지만 적어도 정당방위라고는 생각합니다.”정당방위? 자네의 상황은 알고 있네. 그래도 살인? 조금 지나친 감이 있는 것 같네만. 여행자는 자신의 행동을 살인이라 규정짓는 유령에게 기분 나쁜 반항의식을 느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것들은 저를 공격했습니다.”유령은 눈썹 한 쪽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곧 원래 얼굴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저놈들이 자네에게 저지를 것을 그대로 되돌려준다는 뜻이군. 하지만 자네가 그럴 권리가 있는가?’“살인에 권리를 따져야 합니까? 살인면허라도 따놔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살인 자체는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권리 침해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그렇지. 내 말이 그것일세. 면허도 없는 자네가 살인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여행자는 자신은 뛰어난 도축업자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저같이 법에서 자유로운 이는 황제님 외에는 별 없습니다. 차이점은 그분은 법을 초월하여 그 위에 군림하시기에 합법이시고, 저는 들키지 않은 불법이라는 것이 차이죠.”“안 들키면 모든 것이 가려진다는 생각 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네가 그렇게 될 이유가 없다는 걸세. 나도 그 산적들에 대해선 잘 알지. 바로 이웃되니까. 그러나 굳이, 살인을 저질러야겠는가?”여행자는 유령의 눈을 응시했다. 그리고 돌을 짹 잡으며 항의하듯 말했다. “맞는 말입니다. 살인이란니, 얼마나 야만적입니다. 그러나 저놈들은 그 야만적인 일을 제게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되돌려줄 뿐입니다. 산적 놈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대가를 치루게 하는 것, 그게 잘못입니까?”그리고 여행자는 유령의 반응을 관찰했다. 대답 없이 유령은 여행자의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이성이 돌아온 여행자는 자신이 무례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유령

은 이미 죽음을 겪은 존재다. 죽음이 생물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임을 증언이 가능하고, 그것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다. 어쩌면 사망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그에게 자신이 죽음을 너무 경솔히 여긴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여행자의 양심을 두들겼다.그러던 여행자에게 뜻밖의 말이 찾아왔다. '-사소하군.' "네?" "아, 잘못 말했네. 소원은 자네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긴 하네. 그런데 정말 그것이면 되겠나?"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생각나는 것이 그것뿐이라서요." "그럼 좀 더 신중하게 빌게나. 소원은 단 한 번뿐이니까 말이네." 여행자는 자신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에?" "왜 그런가?" 하늘은 푸르고 밤은 어둡다는, 실로 당연한 고정관념들. 그런 것들은 진실이고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로 생각의 기초를 형성한다. 어려서부터 소원은 3개라는 동화와 전설의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여행자에게 있어 유령의 말은 여행자의 생각 철학을 침해하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다. 항의도 못한 채 유령을 보기만 보던 여행자가 겨우 입을 열었다. "왜죠?" "이건 일회용이니까." "...왜죠?" 똑같은 질문이었다. 그 시선에서 어이없음, 황당함, 절망을 읽어내고 유령은 조금 미소를 지었다. '어디에서 동화 좀 보고 왔나 보군. 물론 셋이 행운의 숫자임은 분명하네. 그러나 이 둘은 다르지. 또 그것이 당연한 거지. 현실 조작이 3번이나 가능하다고? 또 그걸 3번이나 써야한다고? 세상 바꾸는 기회는 한 번이면 족하지, 더 필요하진 않을 거라 생각하네만.' 그래도 여행자는 너무하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아니지만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한 기분을 만끽하며 유령의 말을 들었다. '횃수를 늘려주라는 소원도 가능하네. 하지만 자네가 그 구조를 이해를 넘어 그 둘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야 하지. 그러나 나도 우연찮게 만든 산물이라 이것의 구조는 창조자도 모르지. 또 에너지는 증가할 수 없어. 알아듣겠나?' 에너지 증가니, 물질 구조 이해라니, 그런 말이 여행자에게 이해될 리가 없다. 머리 싸매는 여행자에게 유령이 덧붙이듯 말했다. '그거 말고도 문제가 하나 더 있긴 하지.' "뭐죠?" "소원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 설화 속 램프의 지니처럼 생명과 의식이 있었으면 자기가 알아서 소원을 해석하겠지만 이 둘은 아니지. 그 둘은 의식이 없어. 그저 도구일 뿐일세. 그래서 소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오류를 일으켜버리네. 날 보게. 말을 못 알아먹은 하인이 주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행자는 놀랐다. "잠시만, 소원을 비셨다고요?" "당연하지. 창조주가 아니고서야 그 피조물을 누가 먼저 써보겠는가. 제작목적과는 약간 어긋나지만 지나친 완성품이었지. 그러나 내 것은 소원으로 쳐주지 않았네. 이놈도 분별력은 있는 모양이야. 나 참, 내가 만들었는데도 모르겠어. 아비 속 썩이는 아들 같으니라고.' 자신이 만든 물체를 자식이라 지칭하는 것보다 여행자는 다른 부분에 호기심을 느꼈다. "그럼 무슨 소원을 비셨죠?" "궁금한가?"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든 까닭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무엇이었죠?" "...그러니까, 날 이렇게 만든 소원에 대해 알고 싶다는 건가?" 잠시의 침묵. 갑작스러운 어색함과 싸늘함이 두 인격체를 덮쳐왔다. 호수를 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던 여행자는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유령에게 조금 급하고 우물쭈물하며 말을 꺼냈다. "어,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괜찮네. 이해하네. 그저 삶과 죽음에서 자유가 된 것의 기원이 궁금했겠지. 이도 저도 아닌 회색분자로 변이된 것이 나또한 한탄스럽네. 시체 또한 사라졌어. 삶의 흔적을 소원이 지워버린 것이지. 참 슬픈 일이네. 그렇지?' 불안함을 환기시키려는 여행자를 보던 유령은 주제를 돌렸다. '그보다 미리 말 안 해줘서 미안하군. 써본지도 오래됐고, 또 사용설명서를 가르쳐줄만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아서 말이네. 다행이 이제 더 알려줄 건 없네. 마음껏 쓰게나.' "정말입니까?" "당연하지! 산적을 죽인댔나? 그건 너무 추상적이니 구체적

으로 빌길 바라네. 중요 신체 장기를 빼버리든 자네 재량껏 결정하세. 불치병에 걸리게 하든 어느 부위를 괴사시키든 해서 인생의 고통을 주는 것도 자네 자유이지. 그래서, 어떻게 죽일건가?’ 유령의 복수는 성공했다. 이성을 되찾은 여행자에게 그 말은 조금 자극적이었다. 살해 방식을 정한다는 것은 죄책감과 사실성을 끌어들었다. 여행자는 오싹함을 느끼면서도 소원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들키지 않고 암살할 수 있음에도 마왕이나 악마나 하다못해 국가 전복범도 아닌 고작 산적을 죽인다는 것이 여행자는 아쉽게 다가왔다. 그러나 여행자가 아는 최악의 악당은 카카르 리머르타같은 이미 죽은 역사서의 인물들뿐이다. 때문에 여행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소원을 빌기로 결정했다.-----10분 뒤. 문득 여행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상식량이 이틀 동안 배불리 먹을 정도의 양임을 떠올렸다. 아껴먹으면 5일 동안 생존이 가능하고, 그 뒤로 굶는다 쳐도 일주일의 거뜨히 살아남을 자신이 있었다. 시간은 충분하다 못해 넘쳐났다. 그러나 소원을 빌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뇌는 여행자의 보유 식량을 떠올릴 만큼 잡념이 가득한 상태였고, 그와 뒤섞여 갖가지 별 괴이한 것들이 여행자의 뇌에 떠올리고 있었다. 그 예가 궁극의 낚시 실력이다. 낚시는 생각보다 쓸 만한 기술이다. 막대와 바늘만을 가지고 왕족들도 먹지 못할 전설의 물고기를 낚아낼 수 있다는 것이 여행자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그것의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일 것이다. 그리고 전설의 낚시꾼은 흔치 않으므로 역사에 기록될 명예를 가지기도 충분했다. 여행하며 낚시로 가라앉은 제국을 끌어올리거나 인어나 용을 낚았다는 전설을 전해들은 것도 유혹에 큰 이바지를 했다. 물론 소원의 결과가 고작 낚시 실력이라는 것과 여행자 또한 그런 거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 싫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포기했지만 말이다. 단 한 번의 기회, 구체적인 내용. 여행자는 패닉에 빠지고 싶었다. -소원이 3개라면 동화 인물들처럼 책임없이 쓰면 될 텐데. -내용에 제약이 없다면 나도 모르게 간절히 원하는 걸 달라고 빌면 될 텐데. 그는 소원이 커다란 짐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여행자는 소원도 못 정하는 자신을 탓했다. 스스로를 내면부터 망가트리느,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여행자의 우울증세를 보며 유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조언 좀 해도 되겠나?’ ‘격렬히 찬성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잡념을 지우기 위해 뇌를 표백해야 할 판국입니다.’ 유령이 웃었다. 여행자는 그러지 못한다는 게 큰 아쉬움으로 느껴졌다. 그러고는 행복을 평생의 소원으로 빌어볼까라는 생각을 떠올린 자신의 머리를 후려쳤다. 그 괴이한 행동에 대해 유령이 평했다. ‘가련하군. 이렇게 힘들어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놀랍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랑되기는 힘들겠군. 어디보자.. 내가 보기엔 자네의 소원의 문제점은 사소한 것만 파고든다는 걸세.’ ‘몸이 멈칫한다. 돌 살피는 걸 그만두고 여행자는 고개를 들었다.’ ‘사소하다고요..?’ ‘그래. 아, 혹시 자네도 알고 있었던 문제가 그거였나? 그럼 긴 말 없이-’ ‘사람이 죽는 것도 말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순화시켜 말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 답변은 순수했다. ‘당연히. 살인또한 사소한 행위중 하나지.’ 여행자는 악마 앞에 서있는 기분을 받았다. 그는 여행자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감동과 많은 위협을 겪었고, 이를 말보다 폭력으로 대처하며 검술을 키웠다. 그 기술은 여행자로 하여금 종족 살인을 적지않게 저지르게 만들었고, 때문에 여행자는 죄의식의 고통이 얼마나 거대한지 아는 인물이다. 살인은 인류가 행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행위이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인권을 선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소하다고? 마치 인류에 대한 모독을 들었다는 표정을 지은 여행자에게 유령이 말했다. ‘자기 자식을 살리든, 사랑을 되돌아오게 하든,

부자가 되게 하든 그 모든 것들.. 사소한 행위지. 동화 속이나 나오는 소원들은 항상 그런 법이지.'이제는 고정관념이다. 건들면 안 될 것을 모욕하는 것에 여행자는 뇌가 멈춘 기분이 들었다. 부모, 정치, 인격, 명예, 신앙..여행자는 유령이 자신을 비꼰 것이 아닌가 추측했다. 죽음을 경솔히 여긴 태도를 꽤심히 여겨 유령이 우회적으로 대답하는 거라고. 그러나 존재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에 대응했다고 치기엔 효과는 미미했고, 결정적으로 유령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점점 더 이해 못 하겠다는 여행자에게 유령이 말했다.'아까 자네의 소원이 사소하다고 느꼈지. 세 부적인 것만 파고드는 것 이상한 짓이고, 소원을 자기에게만 비는 건 더 더욱 바보 같은 생각이야. 소원엔 적용 대상에 제한이 없거든.'

'그렇다고 자넨 탓하지 않아.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지. 소원을 바랄 때도 자신이 힘들 때 뿐이야. 때문에 나중에 소원 빌 때도 그때의 일을 기억하게 되지. 자네가 산적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신학자들은 자신이 힘들 때에만 신을 찾지 마라 비난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소원을 자신만을 위해 비는 것을 비판하겠네. 불쌍하고 가여운 이를 동정에서 멈추지 말게. 하다못해 기도라도 해주면 좋을 것을, 귀찮아서 그러지도 않지. 노력은 찬미하는 주제에 말이야.' 누군갈 죽이거나 저주하는 것을, 과거의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을 바꾸려는 것을. 또 소원을 묻거나 소개할 때 당신의 소원을, 제 소원은 이라는 표현으로 소원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을 비판하겠네.' 오랫동안 묵어왔던 누군가에 철학 더미가 여행자에게 쏟아졌다. 그것을 직격한 여행자는 잠시 패닉상태가 될 뻔하다, 멍청하게 대답했다."..네?" 대상을 벗어나보게. 자기 말고 타인으로.' 여행자의 동공이 커진다. 갑자기 세상이 확장되는 기분에 여행자는 얼떨떨했다.' 범위를 확장해보게. 개인에서 집단으로.' 할 말을 잃은 여행자는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다. 그리고 갑자기 엄청난 오한과 카타르시즘이 느껴진다는 것에 아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다. 후유증 없는 마약을 들이췄 기분이었다. 때문에 여행자는 자신의 입을 잠시 통제치 못하고 중얼였다."인류..를?" 유령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스쳐갔다.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었으나, 돌에 빠져있던 여행자는 알지 못했다.--_-- 여행자는 급격한 흥분상태에 빠져있었다. 몸 전체를 터트릴 정도로 혈압 또한 치솟은 듯했다. 온몸의 근육이 수전증이 온 것 마냥 긴장하고 꿈틀거렸다. 탈수에 걸린 듯 메마른 숨을 거칠게 쉬었다. 그럼에도 땀은 한 방울도 배어나오지 않은 건 미스테리하다. 뭔가 형용하기 힘들다는 표정을 짓던 유령이 말했다.'그건 자네 자유일세만.. 그리고 굳이 권장하지도 않아.' "왜죠? 아니, 그보다 가능한 일입니까?" 곤란한 듯 턱을 굽적이던(물론 통과되며) 유령이 말했다.'그렇지. 그보다 내가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아나?' "비밀 아니셨습니까?" 하지만 유감스럽지만 내 소원 내용을 알려줘야겠군. 그래야 이해될 테니까.' 여행자가 조용해졌다. 유령은 어디 바위에 앉는 시늉을 하고는 자기 이야기를 회상했다.'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마법사가 있었네. 그리고 당연하듯, 세상은 한낱 개인의 힘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거기에 불만을 품은 그는 자신의 적성을 살리기로 했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네. 그럼 말이 길어지니까.' 결국은 소원의 원리는 마법이라네. 신께서 정해두신 세상의 법칙을 무시하고 일그러트리는 악마의 힘. 조금 이해되나? 이제 납득했나?' 유령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난 모든 이에게 자유를 달라고 빌었지.' 경악에 가까운 놀라움을 보이는 여행자에게 유령은 미소를 보였다.'정신 차려보니 이렇게 되어있더군. 어쨌든 자유에 가까운 몸을 가지게 되었지. 죽음과 삶, 세상에 단절됐음에도 간섭할 수 있는 육신을 얻게 되었지. 그게 이 산에 구속된 자유인 것만 제외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 의지나 자아를 가진 것도 아닌 그저 돌 하나가 소원을 해석

할 수 없다고. 내용을 왜곡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폭주할 수도 있다고. 그 예시가 바로 나일세. 자신도 이해치 못하는 것을 소원으로 빌면 이렇게 되어 버리지. 어쨌든, 실패한 한 마법사의 이야기는 재밌었나?" 웃음보단 슬픔이 유발됩니다. 그보다 왜 말씀 안 해주셨습니까? 실패했다지만 정말 대단한 소원이고, 자신의 설계목적이며 저같이 소원 못 정하는 놈에게 대신 빌어달라고 귀뜸도 않으셨죠?" "조금 언짢아했지만 다시 턱을 긁적이다 유령이 말했다. '선의를 강요하는 건 좀 그러잖나. 안 그런가?' 여행자의 입에서 감탄이 흘러나왔다. 그 표현방식이 '와-' 가 전부였지만 유령은 딱히 불쾌감은 못 느낀 듯 했다. 유령은 여행자의 우선순위를 지적했다. '그보다 소원을 빌어야지. 안 그런가? 이제 생각해보게. 정말 인류를 위해 소원을 빌 거라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여행자는 유령의 조언에 따라 초점으로 변경했다. 한낱 개인대신 인류를 위해 어떻게 빌어야할지 고민했다. 먼저 그는 자신이 겪어온 많은 일을 상상했다. 일상이라 불리면 안 될 것들이 다수 섞여있지만 그곳에서 의미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대다수 불행이라는 일관적인 상황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박애 정신이나 희생같이 거창한 단어는 필요 없었다. 이미 여행자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다른 이에게 우울함을 줄 만큼 세상 문제점에 관해 설명까지 가능한 경험자이기도 하다. 타칭, 자칭이 아닌 객관적인 전문가. 문득 여행자는 그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보였다. 다시 조금의 시간이 흘렀다. 때문에 여행자는 아까보다는 이른 시간에 여행자는 그것을 정리하는데 성공했다. 과거를 뒤집느라 찾아온 우울함을 감추며 여행자가 말했다. "세상을 방랑하며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여행자의 재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숨입니다. 평화로울 땐 다른 사람의 물건들이 탐스럽게 보이지만, 항상 위급한 순간 때에는 제 재산을 챙기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의 권리 따윈 무시하는 자신이 됩니다." "그 본능이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버리기도 싫습니다. 착한 사이코패스가 되고 싶지만, 전 제가 가장 소중한 것에 감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엔 많은 종족이 있죠. 따지고 보면 그들도 인류입니다. 사람에게만 한정하면 안 되겠죠." "때문에 머리가 조금 어지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빌고 싶은 건지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선택했다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제 소원처럼 행동했다면 좋겠습니다." "어허, 욕심도 많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기적이지겠습니까." 서로의 미소를 보던 그들 중 유령이 먼저 물었다. '그래서, 소원은 정했나?' "정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되네. 시간은 충분하니까." "아뇨, 지금 아니면 시도조차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만 있어도 욕심만 커지는 악독한 물건이군요." "소원 이뤄주는 물건을 악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을걸세." "전 동화 속 인물이 아니거든요." "자신감 과잉이군. 그보다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물어봐도 되겠나?" 조금 고민하던 여행자는 입꼬리를 울리며 말했다. '곧 해답에 도달할 겁니다. 직접 한 번 보시죠.' 반응이 없자 여행자가 덧붙이듯 말했다. "걱정마시죠. 인류엔 저도 포함되니까요." "...알겠네." 유령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지만, 여행자는 별 신경쓰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바뀔때에도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니까. 그래서 여행자는 유령에게 괜찮냐는 질문대신 소원의 사용법을 물었고, 유령은 선선히 대답했다. '돌을 붙들고 빌고싶은 것을 말하면 되네. 주의할건 간절함이지. 정말로 그렇게 빌고싶다는 절박함이 필요하대네. 그러니 꼭 말로 하게. 말로 하는 것만큼 강한 의지표현은 별 존재치 않으니까.' '소원비는데 지장없는 설명이었음에도 여행자는 의문의 표정을 지었고, 유령은 추가 설명을 해줘야했다. '돌이 인지할 수 있어서 그렇대네. 그래서 자네가 계속 돌을 들고있음에도 소원이 발동되지 않은 걸세. 내가 소원을 빌었음에도 기회가 차감되지 않은 것

처럼 돌도 판단은 할 수 있네. 물론 가설뿐이니 따지지는 말게.’납득한 여행자는 자신의 소원을 곱씹었다. 그리고 돌을 쥐고 소원을 빌 준비를 마쳤다.문득 여행자는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를 알게되었다. 주저하던 여행자는 웃음로 얼머부렸다”하하, 돌에 대고 소원 비려니 기분이 이상하네요.””개의치 말게. 종교적, 상징성도 없는 조형물 앞에 절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니.””그런 말을 들어도 부끄러운 건 여전합니다. 아무래도 제 고정관념이 문제인듯 합니다. 동화 속에선 램프나 보석류로 기분 좋게 비는 모습인데 그에 비해 저는 이런 꼴이니까요.. 조금 배부른 소리였습니까?””미안하게 缺. 솔직히 나도 그리 될 줄은 몰랐지. 근데 막상 힘을 완성하니 빨리 써보고 싶은게 인간 마음이라 말이지. 근처에 보이는 것을 집어들고 힘을 불어넣었지. 따지고 보면 다행이었네. 나무처럼 썩어버려 매개체 자체가 파괴될 우려도 없잖나.’여행자는 납득이나 놀라움보다 나뭇가지에 소원비는 자신을 상상했다. 그리고 현재의 자신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한탄스럽게 느껴졌다.’그보다 고맙네.””네? 뭐가 말입니까?””그것을 사용해줘서 고맙다는 말이네. 난 내가 힘들게 만든 물건이 방치되는 모습을 보기 싫었어. 어떻게든 쓰고 싶었지.””그렇습니까? 하지만 반대입니다. 제가 절이라도 올려야 할 판국입니다.””유령의 말을 믿지않은 사람들이 날 보고 도망쳐 귀신이 사는 산이란 별칭을 붙여준 걸 보면 자네가 훨 낫네.’여행자는 다시 미심쩍게 웃었다.”솔직히 의심은 했었죠. 그래서 돌 이곳저곳을 살폈는데.. 돌에 악마진 같은 게 없던걸요.””..그새 살폈었다고? 정말 자네 길거리에 나부리는 입만 산 여행자는 아니군. 악마를 봤다고 해도 믿겠어.’어깨를 으쓱인 여행자는 돌을 바라보았다. 손바닥에 놓인 평범한 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게 아직 여행자는 실감이 되지 않았다. 반대로 자신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과도한 부담감이 여행자의 어깨를 눌러버린다.동굴에 정적이 찾아온다. 종유석의 끝에서 맺힌 물방울이 떨어질 생각도 하지 않는다. 희로애락의 상태에서 여행자는 생각했다.나로 인해 세상이 바뀐다. 거꾸로 숫자세기도 없다. 자신도 모르게 여행자는 돌을 쥐어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외쳤다.시작이다. 인류의 문명 발전이 더 치솟을 수 있는 순간이다.차별? 그런 단어를 단어사전에서 삭제시키리라.모든 걸 평등하게 만들 것이다.그는 돌을 두 손으로 맞잡았다. 기도자세를 한 채로 여행자는 눈을 감는다. 쉽사리 떼지지않는 입을 벌리고 조그마게 속삭였다.여행자는 소원을 빌었다.즉시 여행자는 손에서 간질임을 느꼈다. 처음에는 웅웅거리던 것은 스스로 진동하기 시작했다. 여행자는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을 보고는 황급히 손을 펼쳤다. 그의 예상처럼 돌이 빛나고 있었다.빛의 광자들이 돌에서 벗어나려는 듯 뿔쳐나왔다. 그러나 얼마 못 간채 돌 주변을 공전하다 다시 돌에 달라붙는다. 오팔의 색을 띤 채로 각종 색깔들이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듯 뒤섞이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다.돌이 완벽하게 빛으로 뒤범벅이 된다. 웬만한 보석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할 무렵, 여행자는 발바닥에서 진동을 느꼈다. 자신이 떠는 바람에 발바닥과 바닥에서 마찰이 가해지나 생각하던 여행자는 사방에서 굉음이 일어남을 듣고는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이상하게 굴러가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박살나려는 발작이 일어난 것 같았다. 그는 이 돌의 창조주에게 물었다.”이, 이게 뭔가요?” 대답은 늦게 들려왔다.’글쎄, 소원에 따라 세상을 이루는 물질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가 내뿜어지는 것 같네.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지.””..괜찮은 거 맞죠?””나야 모르지. 소원 빌며 본건 반짝임뿐이었지, 이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었네. 하지만 예상으로는 곧 작은 여진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네.””죽을 수도 있잖아요!””거 참, 소원 들어주는데 그게 대수인가?’어이를 상실한 여행자의 존재를 무시하듯 세상 전체가 위아래로 고동인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지키고 싶

었지만 돌에서 손을 떼는 순간 소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유령의 우려를 듣고는 여행자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동굴이 발작을 일으킨다. 호수 바닥이 비틀리며 생긴 균열이 물을 소용돌이 모양을 띄우고 액체를 빨아들었다. 액체가 세차게 빠지는 소리에 여행자는 귀를 가리고 싶었지만, 손에 든 것 때문에 귀를 가릴 수 없었다. 이를 놀리듯 동굴 통로에서 생겨난 각종 소리들이 메아리로 부딪혀 비명을 질러대 여행자의 청각을 괴롭혔다. 이번엔 천장이다. 찢겨진 종유석들이 자신이 키워낸 석순을 향해 낙하한다. 석회 기둥은 무너지고 커튼처럼 연결된 종유석들은 한꺼번에 떨어져 유리처럼 파편을 튀겼다.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지만 구체적인 생명 위험을 느끼며 여행자는 불안에 떨었다. 깨끗해진 천장이 서서히 갈라진다. 중심부에서 생긴 균열은 서로를 비비다, 거대한 낙석을 떨어트린다. 물 빠진 호수에 물대신 낙석들이 돌덩이의 호수를 채워나간다. 호수에서 물러서던 여행가는 갑자기 눈이 부신 것을 느꼈다. 빛의 근원을 찾기 위해 고개를 들은 그의 눈에 누런 달이 담겨져 있었다. 뚫린 천장을 통해 보는 달이 왜 이리 친근한지 여행자도 알 수 없었다. 갑작스럽게 돌이 날뛴다. 여행자의 감금에 반항하듯 웅웅이는 소리를 거세게 반복한 돌이 자기의 표면에서 수많은 빛을 액체처럼 배어낸다. 여행자의 손을 덮을 정도로 부풀어진 빛의 액체는 지나치게 팽창한 모습을 보였고, 빛으로 뿔뿔해진 돌은 구멍이라도 터진 듯 밤하늘을 향해 머금은 빛을 쏘아 올렸다. 동굴에서 기원된 빛의 기둥이 밤하늘에 세워진다. 그저 빛을 쏘아 올리는 것임에도 광선은 기둥 같았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굵어지고 두터워진다. 그럼에도 조각된 것처럼 아름다운 각선미가 담겨있는 듯 했고, 빛기둥에서 뿜어낸 빛은 주변을 빛으로 물들일 만큼 강렬했다. 그러나 여행자는 빛기둥에서 아름다움대신 혼란을 읽어내었다. 지금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왜냐? 동굴은 빛으로 메꿔졌다. 근처가 하얀색으로 도배됐다는 말이다. 그만큼 강렬한 빛은 대개 눈을 멀게 해버린다. 하지만 여행자는 아직 색깔과 장소 형태를 구별할 수 있었다. 이 또한 이상한 일이다. 밤하늘을 밝게 할 정도의 빛의 중심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처는 조금 흐릿해진 것 이외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빛이 너무 은은했다. 원래라면 이 일대가 빛으로 범벅되어 구별할 수 없어야 한다. 공간인식에 오류를 일으켜 물체의 윤곽조차 보이지 않아야 정상이란 뜻이다. 게다가 원래 발광체를 열을 내뿜기 마련이다. 돌은 빛기둥으로 착각할만한 빛을 쏘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자는 근처는 습습했다. 동굴 특유의 서늘한 온도였다. 의문은 더 큰 상식충돌로 사라졌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돌은 내뿜는 빛의 색을 점차 변화시켰다. 그리고 색을 본 여행자는 자신이 산적에 의해 기절되어 꿈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검은빛을 본 적이 있는가. 광선은 '검은빛'이었다. 빛기둥은 검은색으로 색칠되었고, 한순간에 밤하늘을 '밝아졌다.' 별이나 달 같은 하늘의 발광체들은 검은빛에 가려졌다.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밤하늘은 어두워지지 않았다. '검은빛으로 인해 밝아졌다.' 여행자는 동굴을 둘러보았다. 분명 주변은 밝다. 검은색이다. 이상할 거 없다. 너무 밝은 빛은 자기 색으로 근처를 버무리니까. 아까를 생각하라. 빛의 강렬함으로 주변이 온통 하얀색으로 보였던 거라 생각하면 된다. 그건 이상할 거 없다. 문제는 다른 것에 있다. 그 기원 자체가 미친 것에 주목하라. 검은빛? 완전 검은빛? 블랙라이트는 존재해도 완벽한 검은 빛은 없단 말이다. 이건 환각이고 꿈이고 최면이다. 그저 검은 것을 보고 밝다고 뇌가 착각하는 것이다, 뇌가 밝다와 어둡다는 개념을 착각하는 것이다. 패닉에 빠진 여행자였다. '검은빛이 나타나 주변을 밝힌다.' 그는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졌음에도 고정관념에 가로막혀 이를 믿지 않았다. 여행자는 인식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람의 뇌는 유약하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웃음거리로 전락시켜 충격을 완화시키는 능력을 가

지고 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광경에 대해 여행자는 주변을 환기시켜야 했다. 눈앞에서 밤하늘을 밝히는 검은빛, 수만Km를 밝히는 빛의 근원에 서있음에도 아직 실명되지 않은 것, 강렬한 빛에는 대부분 열이 존재하는데 티끌만큼 화상을 입지 않았다는 의문은 건너뛰었다. 그는 이 빛기둥에게서 가장 어이없는 문제점을 찾아냈다. 여행자는 창조자에게 질문을 위해 지진의 소음을 뚫을 정도 연성을 높였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진이 나는 건 이해해요! 에너지인지 머시기가 방출되고 있으니깐! 근데 빛이 왜 나오는 겁니까!"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있었다. 그때 여행자는 머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다.' '잘 모르겠지만 예상가는 게 있네.' 아까의 대화방식이었다. 반투명한 육체이기에 너무 밝은 검은빛에 뒤덮여 유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령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 사실은 여행자를 안심시켰고, 근처가 소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둘은 대화할 수 있었다. "무엇이죠?" "어두운 방을 채우는 게 뭔지 아는가?" "...어둠이요?" "양초일세. 그곳에서 나오는 은은한 빛은 어둠을 엷게 만들고 사람의 눈을 밝게 하지." 밤이기에 소원을 이룰 수단으로 빛을 선택했다는 말씀이시군! 하지만 제가 알기로 세상은 둥글다 들었습니다! 세상의 반대편은 아침 일텐데 그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목이 아파진 여행자는 바닥을 향해 기침했고, 그로 인해 돌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돌을 겨우 낚아채는 모습을 보며 유령이 머리에 웃음을 흘려보냈다. 잠시 뒤, 여행자가 진정됐을 때 유령이 말했다. '...특이하지 않나?' "네?" "검은빛 말일세. 빛마저 삼켜버리는 검은빛. 어두운 곳에선 빛을 내는 특이한 저것 말일세.' 그제야 여행자는 돌이 그런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알아챘다. 소원을 이루는 도구는 모든 사람에게 닿기 위해 빛을 선택했다. 지금이 한밤이기에 이곳에 빛기둥을 세웠다. 지구 반대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검은색으로 뒤덮었다.' 소원은 그 다음일세. 모든 이에게 도달되었을 때, 둘은 모두에게 자네의 소원을 적용시킬걸세.' 여행자는 무언가의 숭고함을 느끼고 감격스러워했다. 밤낮 모두 존재하는 검은빛. 세상 구석까지 밝히는 그 빛을 보지 못할 인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인류는 빛을 향해 고개를 들것이다. 자신에게 비쳐진 빛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곧 해답을 직접 목격할 것이다. 빛이 거세지고 빛기둥이 더욱 두터워짐에 따라 돌의 진동이 더욱 거세진다. 몸을 덜덜 떨기 시작하는 여행자에게 유령이 조언했다. '잘 잡고 있게. 그건 매우 불안정한 상태야. 때문에 유리처럼 섬세히 다뤄야하지.. 음, 그렇게 쥐다간 자네가 박살낼 것 같네만.' 여행자는 손바닥 속에서 반항하는 무생물을 어떻게 다뤄야할지 고민하며 기쁨과 혼돈을 동시에 느꼈다. 원래 간지러웠던 돌은 날카로운 자신의 표면으로 하여금 여행자의 피부를 긁고 있었다. 그때 육중한 바람 소리가 여행자의 귀를 스쳤다. 그것은 여행자를 아슬아슬하게 빛나갔다. 그리고 무엇인가 여행자에 근처에 착륙했다. 여행자는 그것이 낙석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됨을 느꼈다. 갑자기 다가온 그것중 하나가 여행자의 얼굴을 후려쳤다. 치아가 뒤틀리는 고통과 함께 여행자는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어버렸다. 넘어지는 순간, 여행자는 돌이 손에서 빠져나간 것을 느꼈다. 몸이 바닥과 충돌하는 순간, 이젠 돌이라고 부르기 애매해진 것이 깨졌다. 찌니ㅇ그라ㅇ! 한순간에 모든 것이 죽어버린 듯 진동이 사라지고 빛조차 자취를 감췄다. 모든 것을 밝히던 검은색보다 음영이 낮춰진다. 빛으로 인해 흐릿했던 근처 사물의 형태가 뚜렷해지고 있었다. 눈을 깜박인 여행자는 빛이 사라졌기에 근처는 지나치게 어두웠다. 세상의 멸망이 닥친 기분을 느끼며 여행자는 황급히 상체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주위는 흐릿하게나마 보였다. 그리고는 근처를 살피고, 경악하고, 정신을 떨며 부정했다. 바닥에는 여행자의 칼이 있었다. 산적에게 뺏겼던. 그리고 이젠 가루가 된 모래 한 줌

이 동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미친 놈, 이런 한쪽으로 치우쳐진 과격파는 처음이군!”자기도 모르게 여행자는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얼굴을 확인해야만 했다.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어야 했다. 인류의 구원점을 파괴한 그들을 저주해야 했다. 그리고 발견했다.“산적을 피하려고 산을 부수려 시도하다니, 강 건너려고 강을 매장할 놈을 봤나! 그리고 아깝군. 그런 물건이 있는 줄 알았으면 빨리 잡아뒀어야 할 것을!”그것들은 좀 더 현실적이고 세상 모든 곳에 보편적으로 출몰하는 악인이었다.여행자는 몸을 떨었다. 그리고 생각했다.그들에겐 죽음조차 가볍다. 구원을 망친 이에게 지옥마저 가볍다. 지옥은 많은 자들이 가는 곳, 그보다 더 큰 벌이 필요하다.끝없는 감금, 시간의 저주, 죽음의 되돌림, 신체 변형, 절망의 반복, 기억의 삭제.. 여행자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역사서의 악몽들을 기억해냈다. 과거 미친 마법사나 타락한 성직자나 절망을 노래하는 음유시인이나 마왕의 저주나 성경에 쓰인 가장 기초적인 고문을 기억했다.여행자는 그들이 저주받기를 원했다. 그리고 현실에 직면하고 절망했다.그들에게 가장 큰 벌을 줄 수 있는 순간은 지나친지 오래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소원의 권능을 그들이 박살내었다.주인공은 소원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빛은 사라지고 어둠만이 남았다. 빛조차도 검게 만드는 기적을 행한 것이 죽어버렸다.무쓸모가 된 파편. 여행자는 현실을 부정하며 다시 파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한낱 가루가 돼버린 과거의 영광은 천장에서 하강한 바람에 휩쓸려 흩어질 뿐이었다.“하나 더 있겠지 그 폭탄 내놔!! 협박하지 마. 사용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보이니 지금 당장은 못 쓸 것도 알고 있으니 말이야!”_-__

여행자가 좀 더 침착했더라면 산적들이 헛소리를 늘어둔다는 걸 알아챘을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들의 과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산적들은 패닉에 사로잡힌 지 오래였다. 여행자를 i고 있던 중 갑자기 땅이 흔들리지 않나, 땅에서 빛이 솟아나와 기둥을 이루지 않나, 또한 그것이 검은빛이 되어 세상에 암흑을 밝게 뿌리지 않나, 압도적인 광경을 보고 그들은 여행자에 대한 생각을 삭제시키고 공포를 떠올렸다.성직자에게서 강탈한 성서를 읽었던 산적이 신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외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좀 더 침착하게 비명을 지를 수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완벽히 공황상태가 된 그들은 빛에서 멀어지는 대신 신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자, 일종의 상식결여적인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미치광이의 모든 행위는 상식적이지 않고, 산적 모두가 민주주의적으로 그것에 동의했다. 때문에 몇몇은 도망갔지만 산적들의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빛기둥의 근원에서 그들은 여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곧장 이성을 되찾고 이 사태의 원인이 여행자임을 간파했다. 빛이 밝음에도 사물의 윤곽이 제대로 보인다는 생각은 떠올리진 못했지만 그들은 유식하진 않으니 건너뛰고 아무튼.그들은 산에 지진을 일으킨 여행자에게 크나큰 분노를 느꼈다. 곧장 천장에서 동굴로 뛰어내린 그들은 여행자를 기습해 손에 들고 있던 빛의 근원을 박살내었다.이때 성서도 읽었던 산적은 자신의 상상력을 이용하여 괴상한 말을 내뱉었다.“네가 가진 폭탄을 내놔!”무리들은 그 산적에게 이상하다는 눈길을 보냈다. 괴이한 광경이 사라진 그들은 이성을 되찾았다. 그들은 여행자가 지진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황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말이다.그러나 여행자에게서 반박은 없었고, 침묵이 동의라는, 일종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감행한 산적들은 여행자가 테러범이라는 사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이 정곡을 찔렀다고. 그래서 여행자가 숨을 가쁘게 쉬는 거라고 산적들은 해석했다. 그들

나름대로의 충격 완화라고 볼 수 있겠다.따라서 산적들은 여행자에게서 거센 반항이나 울음, 분노 등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여행자의 다음 말에 산적들은 불만족했다.“카카르 리머르타!!!”주변이 고요해졌다. 산적들은 여행자의 말 해석에 상당한 시간을 낭비하고는, 서로를 돌아보다 말했다.“..이게 미쳤나?”여행자에게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행동했다.여행자는 각국을 돌아다니며 습득한 욕설을 산적들에게 퍼부었다. 그는 내뱉는 문장마다 욕을 주어, 목적어 등으로 변형시키고 언어의 억양마저 완벽히 따라하는 등 언어의 전문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욕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산적들은 처음 듣는 외국어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개소리를 듣고 있다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자신의 뇌에서 나오는 분노가 입으로 구현되지 못함에, 또 그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다는 것에 여행자는 탄식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그럭저럭 노력했고, 그 노력은 도적들에겐 황당함과 짜증을 가져다주었다.“..뭐라는 거야? 카카르 리머르타가 뭔데?”“북동지역 설화에 나오는 거인을 죽인 자의 이름이다!”자신들을 억압하던 거인을 죽이고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카카르 리머르타는 직접 왕이 되었고, 그리고 문무 중 무만 겸비했기에 무능하여 생긴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였고, 결국 거인이 다스릴 때보다 나라는 망해버렸다. 그것이 너희 같다는 부연설명 대신 여행자는 욕설을 열거했다.산적들은 무기조차 없는 여행자에게 살의대신 피곤함을 느꼈다. 그들은 잡담을 떨며 여행자의 폭탄이나 찾아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다 중간에 여행가는 외쳤다.“너희를 죽이려는 걸 그만두고, 은혜까지 베풀 은인에게 뭐하는 짓이야!!”산적은 황당함을 느꼈다. 산적들도 고작 사람 하나 i는 이유가 다 있다. 여행자는 산적 3명 죽이고 하나는 절름발이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절름발이를 낚히고 남은 동료와 함께 원수를 찾고 있는 것이었다.그래서 막상 오니 이 미친놈이 폭탄을 사용해 지진을 일으키고 있었다. 산적 중에 가장 똑똑한 학자(평소에는 몽상가로 불리는 산적)께서 여행자가 흑마법에 가까운 힘을 사용한다고 비전문가로서 단언하셨다.그런 주제에 은혜? 살인이 은혜라는 말인가?그들도 투덜임대신 행동했다. 여행자의 목을 덩강하고 그림에도 살아있다면 몸을 난도질하려 했다. 적어도 장애가 된 동료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주려고 했다.갑자기 주위가 환해지지 않았다면 말이다.긴장의 끈이 당겨진다. 산적은 거칠게 주변을 쏘아보았다. 여행자도 욕설도 멈추고 상황을 살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여행자는 지나치게 침착한 것에 비해 산적들은 혼절을 가까스로 참아냈어야 했다.푸른 도깨비불이 동굴 이곳저곳에 나타나고 있었다. 불이 피어나는 주위로 진한 음영이 맴돈다. 푸른빛을 내는 발광체에 따라 그림자가 일렁인다. 빛과 달리 불은 어두운 푸른빛을 발산하며 타오를 뿐이다.푸른 불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대단했다. 어둠이 섞인 불의 일렁임은 산적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기 충분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공포를 참지 못한 산적 하나가 여행자에게 소리쳤다.“이, 이게 뭔 장난이야!? 이건 눈속임이야! 모두 정신 차려! 이 자식, 당장 그만 두지 못...!”그리고 산적은 눈을 치켜세운 채 즉각 주저앉았다. 다른 산적들이 그러지 못한 이유는 그 산적을 부축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여행자의 뒤쪽으로 푸른 불이 모였다. 그렇게 탄생한 사람 형상이 산적들을 바라보았다. 머리와 추측되는 곳에 눈과 입이 진하게 나타나 미소를 짓는다. 그것은 간간히 푸른 불길의 거세게 타올라 산적들을 주저앉게 만들었다. 그때 산적들은 이 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해내었다.패닉하는 그들에게 ‘타칭’ 산의 주인께서 입을 열었다.“..오호, 안녕하십니까?”불지옥에서 올라온 죄인이 세상에 강림했다!!“으아아아악! 도망쳐, 도망쳐라!”“그 명령에 감탄하겠닷!”그들은 손에든 무구들을 내팽개치고 뒤로 달렸다. 공포로 인해 이곳이 어두운 것을 망각했음에게 그들의 도망

욕구는 특이하게 발현되었다. 돌맹이에 걸려 넘어지거나, 벽에 얼굴을 들이박는 식으로 발현되었다. 그들은 이 기적 혹은 재난이 한낱 여행자보다 한으로 뒤덮인 귀신에게서 초래되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과거 이 산에 미친 마법사가 귀신이 되어 돌아다닌다는 전설이 그 믿음을 맹목적으로 만들었다. 정작 자기들의 손에는 그 전설의 인물이 조우한 사람보다 많은 피가 묻은 걸 무시하며 귀신의 시야에서 도망쳤다. 한참 뒤, 도적의 줄행랑은 천장 뚫린 동굴 밖에서 흘러오는 벌레 소리에 가려질 만큼 희미해졌다. 푸른 불에 타오르는 몸을 꺼내리고 원래의 투명함으로 되돌리며 유령이 중얼였다. '이거 기묘하군. 죽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거란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유령은 뒤를 훑쳐보았다. 여행자는 모래를 모으고 있었다. 여기저기로 흩어진 모래의 양은 적어져 있었다. 때문에 여행자가 간신히 모래더미를 들어 올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의 양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실패한 누군가에게 절망을 주기에는 충분한 양이었다. 그것을 지켜보던 유령이 뜬금없이 말했다. '훌륭하군. 답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 자체를 박살내는 것이라 하지.' 잠시 뒤, 갈라진 목소리로 여행자가 물었다. "진심으로 하시는 말이십니까?" 대답은 없었다. 화를 낼 힘도 없었기에 여행자는 고개를 돌려 '폐허'를 관찰하였다. 동굴은 자신의 형태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 바람이라도 거세게 치는 순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곳을 새어든 달빛이 비치고 있다. 죽은 이에게 밝은 빛을 비추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것처럼 달빛은 여행자의 공허함의 감정을 부풀리는 요인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여행자는 시체처럼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유령은 나지막하게 말했다. '슬픈가.' 한참 뒤, 여행자가 답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지?" "구원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정말인가? 정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인가?" "그 외에는 추측조차 되지 않습니다." "난 보이네." "무엇이 말입니까?" "피해망상을 저지르는 한 사내를 보고 있네." 순간 여행자가 바닥을 걷어찬다. 박살난 돌이 허공으로 튕겨 나갔다. 곧 중유석 잔해에 부딪힌 그것은 여러 번의 텅강되는 소리 이후에 고요해졌다. 여행자는 분노한 자신을 거칠게 억누르며 말했다. "실패했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인류는 해방되고 당신이 바라던 자유가 그들에게 전해졌을지도 모를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그들이 알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피해망상?" 숨을 한 번 거세게 들이쉬고 여행자는 외쳤다. "이것이 당신이 바라던 결말입니까!!" 삶과 죽음에서 자유로운 이는 '너의 생명의 은인에게 할 소리냐?' 라고 말하지 않았다. 반투명한 육체의 소유자는 대신 질문했다. "내가 왜 혼자 있는 이에게만 기회를 주는지 아는가?" 대답 없이 찡그림만 있었고, 유령은 자문자답했다. '둘 이상이면 서로 소원을 차지하기 위해 다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네. 그래서 산적들에게엔 일체 접근도 안 했어. 자기들끼리 죽일 것이 분명하기에. 소원이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할 것이 분명하기에.' "... 하지만 그것들이 소원을 부셨지. 모래는 모습을 감춘 지 오래다. 흔적조차 남지 않은 소원에 대해 여행자는 깊은 탄식을 느꼈다. 그에게 유령이 말을 걸었다. '자네는 모든 것에 대가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안 그런가?' 대답없이 여행자는 고덕였고, 유령은 달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책임없는 자유는 그저 폭력뿐이니까. 근데 인류가 자유를 위해 무슨 대가를 치루겠는가?' "...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여행자는 진정했다. 그는 유령의 말을 듣고 감정표현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질문이었다. '자유라는 물건의 값이 얼마인가?' "그것에 가치를 매겨서는 안 됩니다. 그 값대로 자유를 한정 지을 뿐만 아니라 사고팔 수 있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난 그 시도를 했네. 보게. 책임없는 자유를 누리려다 죽지도 못한 인간이 여기 있네." 여행자는 그 말을 인정하

지 않았다.“당신은 대단합니다. 현실조작의 권능. 그것으로 세상에 자유를 줄 수 있었을 겁니다.”“아닐세. 그 역도 가능하지. 이곳에 갇혀있으며 알아낸 사실이 있네. 이런 힘이 뭐가 좋겠는가. 단 한 번으로 세상을 뒤트는 이 힘. 권능 자체는 인류를 기술 지체로 몰고 올 재앙일세.”말을 바꾸시는군요. 당신이 제안하신 것이 아닙니까?”“조언이지, 강요는 하지 않았네. 잘 생각해보게.”

여행자는 유령이 강제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 자신이 조언을 부탁한 것을 기억해냈다. 그때 유령이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내 소망이 이뤄졌으면 했지만..’유령이 구슬프게 말했다. 아들에 대한 죽음과 인생의 실패에 대해 흐느끼는 사람 같았다. 여행자또한 아들의 사망에 우울함을 느낄 때, 유령이 말했다.

‘혹시 그거 아는가?’

“뭐죠?”“인류 전체에 비는 소원은 과도한 인권침해일세.”“왜죠?”“자기 가치관 강요이기에. 다른 사람의 의견하나 없는, 자기 시점으로 인류를 해석하지. 잘 생각해보게, 정말 자네 소원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가?”“당연하죠. 그게 무슨-”“세상엔 많은 종족과 가지각색의 철학을 가진 이들의 입을 닫히고 자기주장만 펼치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았나?”여행자의 표출되지 못한 분노가 당황과 함께 이그러졌다. 유령이 말했다.‘이렇게 된 이후, 난 끊임없이 자유라는 소원에 대해 생각했네. 그리고 허무함을 알았지. 진정한 자유?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 진정한 자유란 말인가? 불완전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진정한 것이 도래될 수 있단 말인가? 모순적이고 불가능한 말일세. 자유 자체가 구속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지. 자유가 커질수록 구속도 강해져. 매우 역설적이야. 하지만 그렇기에 구속에 걸린 모든 이가 자유의 가치를 맛볼 수 있는 거지.”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죠?”유령은 웃으며 말했다.‘구속 없는 자유는 폭력이라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소원이지. 국가는 사람이 인정한 것이나, 소원은 인정되지 않아. 한 사람만의 소망만이 들어가고, 타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든”그러니 자기 자신에게만 독재를 저지르게.’말없이 여행자는 폐허를 돌아보았다. 아직도 그는 이해되지 않았다. 물론 그 누구도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선의는 될 수 있지 않았을까?속으로만 생각한 질문엔 대답은 없다. 대신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다.‘과거는 현재에 간섭할 수 없는 노릇이지. 선택권은 현재에 있어. 그래서 난 아무 간섭조차 하지 못했지. 한걸음 뒤에서 말만 할 뿐이네. 그러니 자유롭게 생각하게. 자네가 판단하게나. 그리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게나.’어느새 유령은 곧 무너져내릴 듯 불안정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점점 조각나는 유령을 보고 여행자는 이유 없는 다급함을 느꼈다.“무슨 일이죠?”“갈 때가 된 것이지.”상체부터 서서히 유령의 몸은 가루로 쪼개진다. 뚫린 천장을 향해 푸른 가루들이 상승한다. 형태가 사라지는 그것이 이렇게 말했다.‘그래, 이곳에서 날 해방시켜줘서 고맙네..’

한이 풀려서 일까, 이승에 미련을 버린 걸까. 돌이라는 매개체가 박살나 자유를 얻은 걸까.. 수많은 생각이 교차되었으나 질문의 기회는 사라져 버렸다.

말을 마친 그것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이 없었다. 그 어디에도 시체가 없었다.한 사람

의 소멸을 지켜보던 여행자는 문득 생각난 것처럼 일어섰다. 다리는 이미 나은지 오래였다.. 아니, 충격으로 잊어버린 걸 수도 있겠다. 여행자는 그것을 따지는 대신 자신의 칼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한때 소원을 박살냈던(너무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다) 그것을 칼집에 집어넣었다. 집에 돌아온 칼이 명쾌한 스르륵 소리를 내며 잠들었다.순간 여행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장 원하는 물건을 얻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새삼스레 칼집을 보았다.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되었다.그러나 소원은 이루어졌다. 왠지 복잡한 기분에 사로잡혔던 여행자는 자신의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그는 터벅터벅 동굴을 빠져나갔다.